

# 2022 공간문화예술교육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 [행사개요]

- 행사명: 2022 공간문화예술교육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 일시: 2022. 10. 22.(토) ~ 11. 20.(일) (22일간 / 수-일 운영)  
 ※ 2022. 10. 21.(금) 14:00 / 사전 프레스 리허설 진행 예정
- 장소: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남동측 1층 / 구.해피시니어)
- 구성: 어린이대상 놀이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 주관: (재)부산문화재단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운영: 부산일보(주)
- 문의: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051-745-7282

## ■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시즌 테마	『관계, 연결 그리고 공간』 - 주요 사회적 현상(코로나로 인한 소통·관계의 단절)와 아동, 가족대상층에 맞춘 스토리형 융·복합예술 전시교육 프로그램 제작 운영
교육내용	촉각의 숲 / 빛과 상상의 창을 보는 설레임 / 미디어 여행 / 착시의 공간 체험 부모와 함께하는 예술놀이 / 나를 위로하는 캐릭터 안기 / 자연과 상상의 쉼터
구성 및 연출	- <예술여행> : 여정에 따른 공간구성 ↳ 참여자의 상상력과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치미술, 미디어, 놀이아트, 자연 공간 활용 - 프로그램 여행지도 제작 (배부를 통해 각 체험 작품의 동선 구체화) ↳ 체험방법, 질문, 경험을 정리하도록 설계. 온전한 하나의 예술적 여정 - 실내 및 실외 공간동선을 연결함으로써 공간의 입체성과 홍보에 효율성 높임.
주요특징	- 스토리 중심 프로그램 : '만지지 마시오'가 아닌 오감자극 체험형 프로그램 - 5세~10세 집중체험 설계 프로그램과 동시에 가족 중심 프로그램

## ■ 행사 전체일정

■ 주말 / ▲ 평일

	토	일	수	목	금
일정	■ 10/22, 29 ■ 11/5, 12, 19	■ 10/23, 30 ■ 11/6, 13, 20	▲ 10/26 ▲ 11/2, 9, 16	▲ 10/27 ▲ 11/3, 10, 17	▲ 10/28 ▲ 11/4, 11, 18
	총 5회 시간: 10:00~17:00	총 5회 시간: 10:00~17:00	총 4일 (8회) 1회: 10:00 ~ 12:00 2회: 14:00 ~ 16:00	총 4일 (8회) 1회: 10:00 ~ 12:00 2회: 14:00 ~ 16:00	총 4일 (8회) 1회: 10:00 ~ 12:00 2회: 14:00 ~ 16:00
	■ 주말: 현장 접수		▲ 평일: 유,초등(공문, 전화접수), 일반(플랫폼, 전화접수) 초등학교, 유치원, 또는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		

행사 포스터



행사 안내 QR 코드 및 평일 프로그램 접수처



행사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남동측 1층 및 야외 숲속길



행사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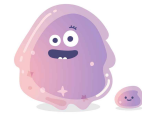


별첨자료1

세부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안내

2022 공간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2022년도 (재)부산문화재단 공간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단절 되었던 관계, 소통, 공감능력의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감수성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가족 대상층의 '예술체험·놀이·교육 콘텐츠'와 '공간문화'를 실험해보며, 부산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역량 있는 지역작가와 아동과의 만남으로 지역의 새로운 시민 참여형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아동들이 어른들의 개입과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창작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제공하고, 창의력을 표출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재발견 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예술 여정을 통해 그동안 숨죽여 왔던 오감과 상상, 즐거움, 심을 가까이 만나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의 시작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

안녕, 친구들아! 상상여행에 온 걸 환영해!

난 “몽야” 라고 해 :) 난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큰 파도에 떠밀려 모래사장위로 떨어졌어. 그때 친구들이 날 모래로 만들어줘서 태어나게 되었지. 그런데... 함께 놀던 친구들이 “코로나”라는 나쁜 녀석을 만나 더 이상 날 못 만나게 되었어.ㅠㅠ 난 너희와 함께 놀고 싶어. 그래서 너희를 초대 했어! 나와 함께 상상을 만나러 가지 않을래? 움직이는 선들과 친구도 하고, 상상의 숲에서 열매도 따보고, 동물 친구들과 재미있는 주사위 놀이, 스트레칭 거대인형도 만나고, 창문 넘어 세상도 구경하고, 달과 별이 있는 우주여행, 자연 속 공중 그네를 타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날 만나려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난 너희가 꿈을 꾸고 상상하면 할수록 힘을 얻어 짠하고 나타날 수 있어! 나를 생각하며, 내 이름을 불러주겠니? 자, 준비 됐니? 하나. 둘! 이제 함께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여행을 시작해 볼까?

프로그램 즐기기

- 1) 입구에서 여행 지도를 지급받고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닥에 텍스트 디자인을 활용하여 전시여정 안내 받기.
- 2) 여행지도: 전체 프로그램 안내, 각 공간에 따른 체험안내와 교육 프로그램 설명의 워크북

<p><b>설렘과 낯설 “착시의 풍경 속으로”</b></p>	<p><b>김가민</b></p>	
<p>“이상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평평한 바닥과 벽이 요술을 부리듯 튀어 오르고 웅덩이가 생겼어요.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여 선들과 함께 설레는 여행을 시작해볼까? 선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춤추며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 줄테니 겁먹지 말고 오늘 멋진 일일 탐험가로 변신해서 세상을 놀라게 해볼까?^^</p>		


프로그램 즐기기 / 20분 소요예정

- 1) 미션1. 큰 웅덩이나 이상한 통로로 빠지는 재미있는 동작과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 2) 핸드폰을 통해 QR코드 홈페이지를 찾아 착시 영상 함께 보기

평평한 바닥과 벽이 요술 같은 선들로 튀어 오르기도 하고 웅덩이도 생기는 우리 눈의 혼동을 이용한 착시 미술입니다. 천천히 선들의 집합이 만든 새로운 세상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

- 김가민 작가

2021년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시작하여 부산, 서울에서 다양한 전시에 참여한 부산의 젊은 작가. 담쟁이덩굴 그리기, 철망으로 도형 만들기, 설치, 영상작업까지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p><b>모험과 체험 “촉각의 숲으로 떠나자!”</b></p>	<p><b>문지영</b></p>	
-------------------------------------	-------------------	---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촉각의 숲”이 나올 거야.  
 평소에는 지나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너의 눈앞에 펼쳐질 거야.  
 천천히 다가가 보고, 만져 볼까?  
 손과 발, 팔과 다리, 얼굴과 목 그리고 등까지 온 몸으로 느껴보렴.  
 눈을 감고 열매의 모양과 색깔을 상상하면서 너만의 숲을 만들어 보는 거야.

**프로그램 즐기기 / 20분 소요예정**  
 1) **미션2.** 촉각의 숲 입구에 걸려있는 루페라는 현미경 돋보기와 작가가 만든 체험 종이(설명)를 들고 촉각 여행 즐기기  
 2) 루페(Loupe): 사람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운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만든 렌즈

여러 가지 촉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촉각의 숲을 여행 합니다.  
 손과 발, 팔과 다리, 얼굴과 목 그리고 등까지 내 몸 곳곳의 촉각을 일깨우고, 몸이 느끼는 자극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 문지영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을 졸업.  
 부산비엔날레 및 부산, 광주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 소외된 사람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모습을 작품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전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과 과학을 합친 많은 연구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술과 교육 도르래' 대표이며 경성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p><b>주사위 놀이 “나는 멸종 동물입니다”</b></p>	<p><b>김미영</b></p>	
------------------------------------	-------------------	--

“상상 특공대 친구들아! 우리를 지켜줘”  
 넌 어떤 동물을 닮았어? 넌 어떤 동물을 좋아해? 우리 이번엔 동물로 변신해볼까?!  
 그런데..지금까지 함께 온 동물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대. 우리와 함께 상상여행을 갈 수 있도록 어서 빨리 도와주자!

**프로그램 즐기기 / 20분 소요예정**  
 1) **미션3.** 게임판 속에 있는 열쇠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을 적어서 '이그미'에게 보여주고 바구니에 담긴 선물을 받아가세요  
 2) 100칸의 게임판 게임. 친구 또는 가족 2명이 한 조로 함께하는 놀이. 한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고 다른 한 사람이 숫자대로 이동

- 주사위를 굴러 나온 수만큼 이동 후 게임 판 속의 열쇠를 찾아 동물 친구들을 구하는 게임


**- 김미영 작가**  
 2018년 '생존과 멸종사이'라는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전시에 참여한 부산의 젊은 청년 작가.  
 그림 속에는 사슴, 고래, 코끼리, 표범, 사자들이 책과 함께 다양한 상상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2022년 어린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이드잇' 단체의 대표자 이제 기획자로 활동 중 입니다.

<p><b>치유, 요가 “힐링 여행”</b></p>	<p><b>황인지</b></p>	
------------------------------	-------------------	---

착시의 공간, 촉각의 숲, 동물 친구 구하기까지!  
 숨 없이 열심히 달려왔으니 우리 이제 잠시 쉬어볼까?  
 우와! 엄청 큰 스트레칭[스트레칭] 인형이 우리를 반기네.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휴~우 큰 숨을 쉬며 오늘의 숙제는 잊고 스트레스를 날려 보자!

**프로그램 즐기기**  
 1) <매일매일 스트레칭> 요가매트에 누워 스트레칭 인형 자세와 공간 안에 제시된 움직임을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 황인지 작가**  
 201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0년<여성들의 일-평생>을 비롯 9번의 개인전과 많은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자신과 닮은 하마캐릭터를 주인공 삼은 페인팅 작업을 주로 진행해 왔으며, 주변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그림과 이야기를 표현을 즐기는 작가입니다.

<p>다양한 원들의 모임 “원으로의 여행”</p>	<p>오유경</p>	
-----------------------------	------------	---

동글동글, 동글동글 마을이야!  
구름도, 후 ~ 입김도, 거품 비누, 접시도 모두모두 동그란 세상  
작은 원들이 만든 구름. 다양한 동그라미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리듬에 따라 함께 춤을 춰볼까?

원들의 다양한 집합과 변주가 주는 명상적 체험, 탁구공이 모여 만든 구름.  
다양한 크기의 원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만들어 내는 리듬과 형태 체험.  
단순한 형태의 집합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 구성 및 확장


**- 오유경 작가**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파리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공부를 하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서울, 부산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전시를 함. 그림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작품, 물건들을 설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상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상 수상과 동시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에르메스 재단 등 많은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부산지역 작가입니다.

<p>여행 중의 방문 “상상의 방”</p>	<p>허수빈</p>	
-------------------------	------------	--

저기 여러 개의 창문이 보이는 집이 있네. 각 벽마다 다른 세상들이 보여!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집도 보이고, 세수하는 소리도 들리고, 창밖으로 파란 하늘을 보니 마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 창문 넘어 보이는 수많은 동네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는 걸?  
오늘은 내가 이야기 자판기가 되어 가족들에게 창밖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줄래!

전시장 한가운데 커다란 사각형 집에는 벽마다 하나씩 총 4개의 창문이 있다.  
①첫 번째 문: 반지하 창문 /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들지만 정글처럼 숲이 우거져 있다.  
②두 번째 문: 방법창살 창문 / 창문 넘어 멀리 조그만 아파트가 있다.  
③세 번째 문: 화장실 창문 ④네 번째문: 주방 창문 / 창밖으로 파란하늘이 보인다.  
⑤번외: 욕실창문 속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기 / 무엇이 보이나요?


**- 허수빈 작가**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독일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100회 넘는 기획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 부산 산복도로 밤하늘에 뜬 창문 가로등 및 영도 갭강이 예술마을의 구름 가로 등 제작. 최근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있다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 '답이 없는 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p>미디어 우주여행 “달과 별로 떠나자!”</p>	<p>조형섭</p>	
------------------------------	------------	---

너의 작은 손과 팔로는 닿을 수 없는 끝없는 우주 속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  
미지의 세계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채워 보는 건 어떨까?  
별 하나 하나. 저 밝은 달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가보자!  
깊고 깜깜한 우주 정거장 속의 너라는 가장 반짝이는 별을 한번 찾아볼까?

달과 별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이다. 닿을 수 없는 우주를 설치 미디어를 통해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보는 환상적 체험을 보여준다.

**- 조형섭 작가**  
독일 바우하우스 대학교 순수 미술 석사 졸업. 다수의 개인전과 국내외 기획전과 초량천 예술정원, 경기 노미딕 아트페스티벌 등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을 깊게 생각하는 철학자 같은 작가로, 부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 온전한 휴식 <b>“숲속의 심 여행”</b>	<b>김 용</b>	
<p>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평온함.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누워서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껴보자                  평소엔 들리지 않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들이 눈을 감고                  잠들었던 귀를 깨워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란다.</p>		

**프로그램 즐기기**

- 1) 5세 이상은 5인 이상, 성인 3인 이상 올라 갈 시 공간 부족 및 무게로 위험 할 수 있으니 안내를 받고 체험 하세요
- 2) 해먹은 그녀가 아닙니다. 심하게 흔들거나 장난치면 위험해요!

자연의 냄새, 소리 그리고 지금은 보기 힘든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옷과 이불 등을 이용해 만든 쉼터



**- 김 용 작가**

올해 봄 '8°의 두께'라는 첫 개인전을 한 부산의 신진작가. 주변의 쓰레기에 대한 탐구, 우유, 확산기, 줄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사소한 것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입니다.

**상상이의 상상여행 이야기 - 전체 스토리**

상상이는 놀라서 잠이 깬어요.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꿔기 때문이죠.




“상상아, 일어났으면 집 앞 슈퍼에 가서 달걀 3개만 사올래?” 엄마의 아침 심부름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상상이가 앞에 이상한  하나가 나타났어요. 검정색 원 모양이 연속적으로 있는 입니다.

상상이는 톱톱 튀며 굴러가는 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이상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온 세상이 검정색 선으로 가득 했어요.

어질어질 울퉁불퉁한 신기한 세상이에요. 큰 웅덩이도 있고 벽에 큰 구멍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은 톱톱 튀다 큰 웅덩이로 떨어졌어요. 상상이는 을 주우려다 과 함께 큰 웅덩이로 빨려 들어가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울창한 숲이었어요. 숲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숲을 헤치고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보드라운 손길, 성계의 뽀족함, 철수세미의 까칠까칠함, 말랑말랑, 폭신평신했던 촉감이 느껴졌어요.

숲 끝에 다다르자 넓은 벌판이 펼쳐졌어요. 그곳엔 거인들이 아주 큰 주사위를 던지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너도 같이 할래?” 상상이는 첫 주사위를 던졌어요. 에게게.. 겨우 1...

처음에 한 칸밖에 이동하지 못했지만, 결국 거인들을 물리치고 100번째 칸에 먼저 도착했어요.


“재미있게 놀았더니 피곤하군.”


거인들과 상상이는 하마같이 생긴 커다란 스트레칭 인형이 시키는 대로 다리 찢기,

온몸을 구부리고 펴는 요가를 한 후 휴식을 즐겼어요.

거인마을은 구름도 동글동글, 입김도 동글동글, 거품 비누도 동글동글, 접시들도 동글동글, 바람도 동글동글...


거인 나라는 별과 달도 많고 엄청 크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옆 행성에서 부는 세찬 바람에 어디선가 나타난 이 날아오자,



갑자기 거인 나라는 사라지고 은 4개의 창문을 가진 집안으로 떨어졌어요 .

공을 찾아 들어 다 본 창문 안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이 있었어요.

낮은 창문을 들여다보자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저기 있다! 정글 속에 이상한 이 보입니다.

공을 찾아 집의 작은 문을 열고 조심조심 물소리가 나는 욕실을 지나자 큰 숲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은 큰 소나무 밑에 있었어요. 조심 조심, 드디어 상상이는 이상한 을 잡았습니다.

안도와 함께 피곤이 몰려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소나무 숲엔 할머니의 이불처럼 포근해 보이는 공중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는 엄마의 품처럼 편안합니다.

달걀 3개의 걱정과 이상한 을 안고 상상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 예술감독 이육상